주식전략

면역력이 생긴 시장, 실적 그 다음에는?

주식전략 이상연
T.02)2004-9045
lee.sang-yeon@shinyoung.com

분석의 기본 가정

- 시장의 관심은 지정학 리스크에서 기업 펀더멘털로 옮겨간 상황
- 단기 변동성을 수용하되 하방보다는 상방이 열려있음을 염두할 필요

면역력이 생긴 시장이 궁금한 건 기업의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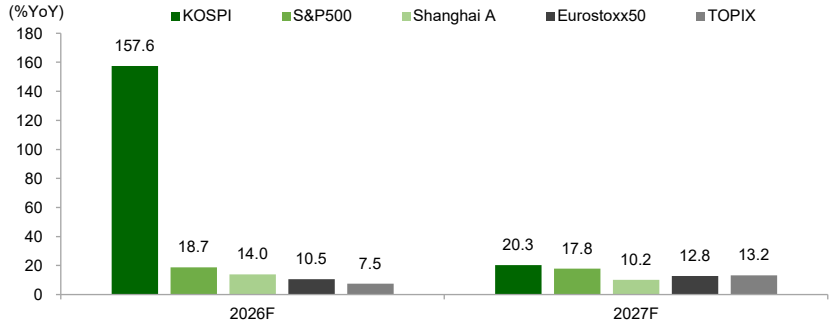
지정학 리스크를 이유로 지수 하락 폭이 확대될 경우 중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주식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유지한다. 이미 시장에서는 지정학 리스크 고조는 더 이상 새로운 변수라기보다는 '반복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어 온 이벤트'에 가까운 상황이다. 글로벌 증시는 이미 4월을 기점으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멘텀 및 펀더멘털 중심의 장세로 재편되고 있어 향후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지수의 하단이 견고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단기 변동성은 일부 수용해야겠으나 실적 모멘텀을 반영하며 전고점 경신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높아진 지수 레벨이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글로벌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의 EPS 추정치 상향 조정 폭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은 이를 상쇄하는 핵심 근거다.

실적이 끝나면 정책이 온다(1): 중복상장 원칙 금지

통상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소멸된 이후에는 증시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경향성이 있다. 이때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바로 정책 모멘텀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중복상장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 및 공시 규정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자회사 상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가 명문화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축 중 하나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구조적인 할인 요인이 컸던 지주사 및 그룹 지배구조 관련 기업들의 경우 NAV 대비 할인 축소 기대가 반영될 수 있어 리레이팅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표 1. 주요 지수 연도별 EPS 추정치 전년대비 변화율



자료 : LSE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면역력이 생긴 시장이 궁금한 건 기업의 실적

양 측의 입장 번복은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수단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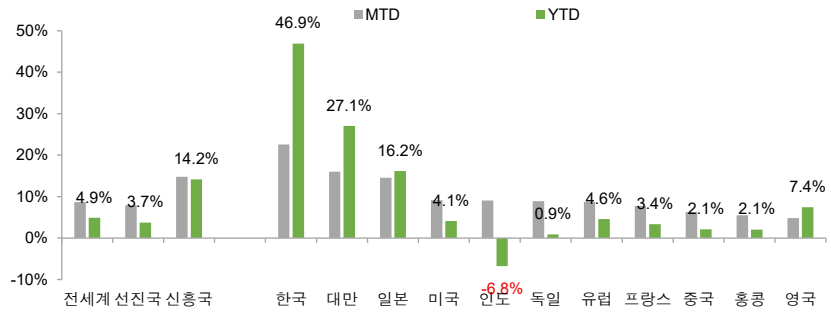
레바논 휴전 합의에 따라 이란의 상업용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이 나오자 글로벌 증시는 반등폭을 확대했다. 다만 주말 사이 미국이 해협 봉쇄 해제를 명확히 하지 않자 이란 역시 재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며 긴장은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정학 리스크를 이유로 지수 하락 폭이 확대될 경우 중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주식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유지한다. 당초 합의된 2주간의 휴전 마감 시한(21일)이 임박한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군사적 충돌 확대는 미국과 이란 모두에게 부담이 큰 선택지라는 점에서 극단적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주식 시장은 이미 모멘텀 및 펀더멘털 장세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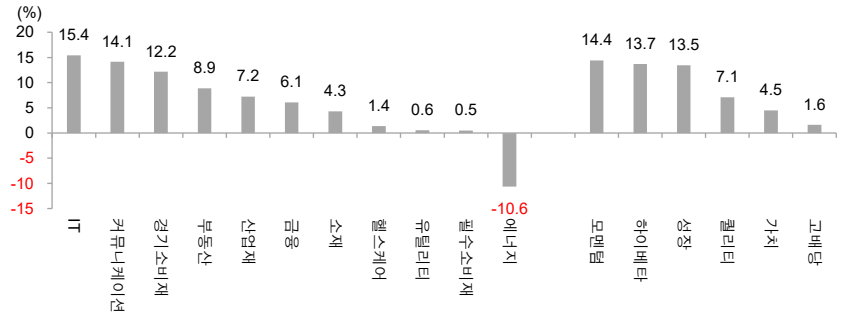
이미 시장에서는 지정학 리스크 고조는 더 이상 새로운 변수라기보다는 '반복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어 온 이벤트'에 가까운 상황이다. 온전한 종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글로벌 증시는 4월을 기점으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증시는 연간 기준 (+) 수익률로 전환되기도 했다. 또한, S&P500의 업종 및 스타일별 월초 대비 수익률 흐름에서도 확인되듯 이미 시장은 리스크 회피 국면에서 점차 벗어나 모멘텀 및 펀더멘털 중심의 장세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향후 변동성 확대 국면이 발생하더라도 지수의 하단이 점차 견고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도표 2. 글로벌 증시 수익률 비교



주) 2026.04.17 기준 /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S&P500 업종 및 스타일별 MTD 수익률



주) 2026.04.17 기준 /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모멘텀 부각 속 전고점 경신 가능성 높음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단기 변동성은 일부 수용해야겠으나 실적 모멘텀을 반영하며 전고점 경신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구간에 진입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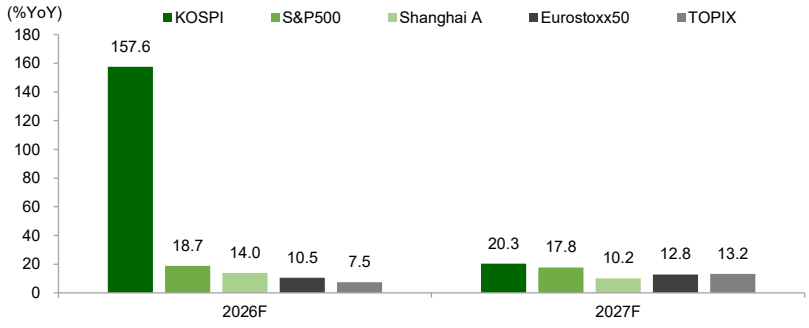
높아지는 지수 뒤에는 압도적인 이익 모멘텀이 존재

높아진 지수 레벨이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글로벌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의 EPS 추정치 상향 조정 폭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은 이를 상쇄하는 핵심 근거다. 실제로 최근 이익 컨센서스 흐름을 보면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장 빠른 속도로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증시가 단순한 밸류에이션 확장이 아닌 이익 주도형 상승 국면에 위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뉴스플로우에 따른 변동성 확대 리스크는 잔존하겠으나 이는 증시의 추세를 훼손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상승 추세 내 조정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장은 절대적인 주도 업종(반도체) 외의 업종을 찾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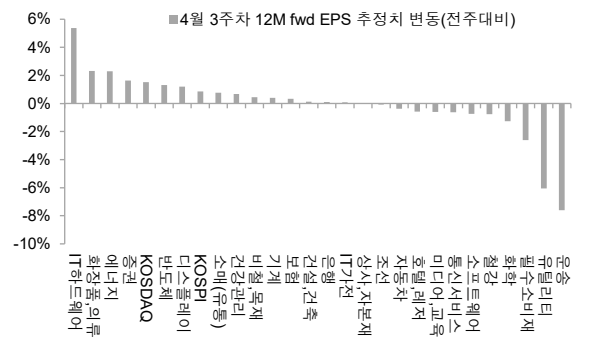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실적 가시성과 모멘텀이 동시에 확보된 분야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유효하다. 최근 절대적인 주도 업종인 반도체를 제외하고 알파를 낼 수 있는 업종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IT하드웨어, 화장품/의류, 에너지, 증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수급 측면에서는 3주 연속으로 외국인이 IT가전, 화학, 소매(유통), 보험, 철강을 순매수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도표 4. 주요 지수 연도별 EPS 추정치 전년대비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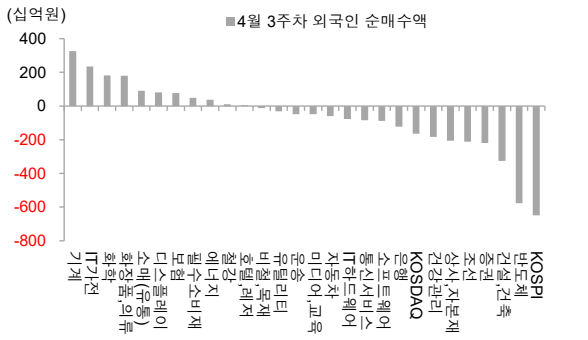
자료 : LSE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전주대비 4월 3주차 12M fwd EPS 추정치 변화율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4월 3주차 주간 업종별 외국인 순매수액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실적이 끝나면 정책이 온다(1): 중복상장 원칙 금지

실적 모멘텀 소멸 이후에는 정책 모멘텀

기업 실적 향상에 따른 증시 호황을 즐김과 동시에 그 이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 통상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소멸된 이후에는 증시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경향성이 있다. 이때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바로 정책 모멘텀이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 예외 허용 1)영업 독립성, 2)경영 독립성, 3)투자자 보호 모두 충족 필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개한 추진 방안을 기초로 4월 중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르면 7월부터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식의 중복상장 특례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상장 및 공시규정 개편의 핵심은 IPO 질적심사기준에 중복상장 특례를 별도로 마련해 1)영업 독립성, 2)경영 독립성, 3)투자자 보호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회사 상장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 부여 예정

금융당국의 경우 다가오는 6월까지 자회사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한국거래소 공시로 모회사 이사회에 부과되는 주주 충실 의무가 법상 의무 규정이 되면 자회사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경우에도 규율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HD현대로보틱스, SK에코플랜트, 한화에너지, CJ올리브영 등의 IPO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회사가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우리 증시의 구조적 디스카운트 완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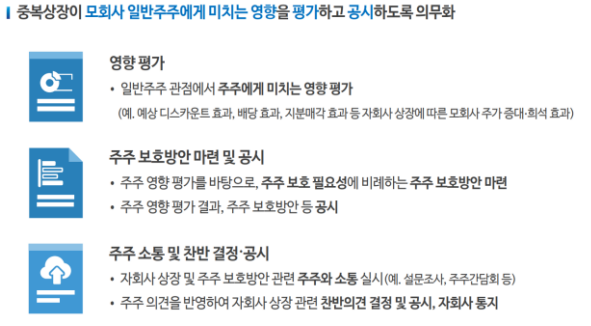
모든 자회사 상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만큼 상장 과거 대비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자회사 상장은 단순한 지배구조 이슈를 넘어 성장 사업의 독립적인 자금 조달과 기업가치 재평가를 위한 중요한 전략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규제가 상당히 부담요인일 것이다. 또한 이미 상당 기간 준비해온 IPO가 정책 변화로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기업가치 훼손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전체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구조적 디스카운트 요인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 더 크다고 판단된다.

도표 7. 중복상장 제도개선 추진 방안

심사 기준	내용	세부 내용
영업 독립성	자회사의 주된 영업이 모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지 여부 심사	영업 유상성 영업 의존도
경영 독립성	자회사의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가 독립적인지 여부 심사	경영조직 의사결정
투자자 보호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 소통 및 보호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심사하고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여부 등도 확인	상장 필요성 주주 소통 노력 주주 보호 노력

자료 : 금융위원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모회사 의무사항



자료 : 금융위원회

일본은 2023년부터 자회사 상장과 관련된 규제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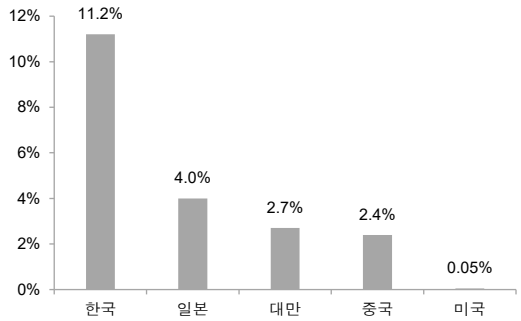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는 반복적인 중복상장 이슈로 인해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지주사 및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 전반에 할인 요인으로 반영되어 왔다. 사실 중복상장 자체가 한국과 일본 정도에서만 유의미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 특징적인 구조인데 일본은 이미 2023년부터 이와 관련한 정비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2023년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상장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본 금융청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와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비핵심 자회사 정리, 지배구조 단순화, 자회사 완전 자회사화 또는 지분 매각 등을 유도하고 있다.

2026년 1월에도 거래소가 중복상장과 관련된 현황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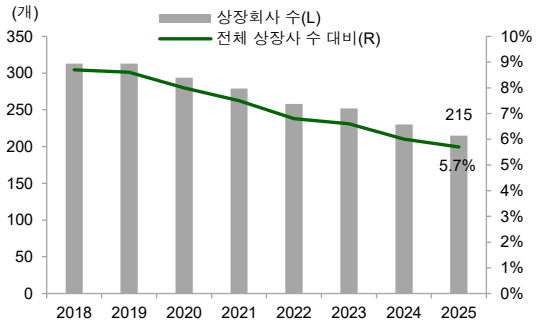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는 최근(2026.01)에도 도쿄 증권거래소가 중복상장과 관련한 현황보고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주요 기업들이 상장 자회사를 정리하거나 구조를 단순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이는 실질적으로 일본 증시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년 이래로 일본 증시 내 상장 자회사의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313개에서 2025년 기준 215개로 축소된 상황이다.

도표 9. 국가별 중복상장 비율(2025년 시가총액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JPX 중복상장 현황 공개(2026.01)



자료 : JPX

도표 11. 일본 주요 중복상장 해소 사례

연도	모기업	상장 자회사	내용
2023	혼다	야치요 공업	공개 매수를 통해 완전 자회사화한 후 인도계 기업에 매각 발표
	후지소프트	Cyber Com, Cybernet Systems, Fuji Soft Service Bureau, Vinx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로 4개의 자회사 완전 자회사화 및 상장 폐지
2024	미쓰비시 상사	로손	KDDI와의 공동경영 전환 및 로손 상장폐지
	후지츠	신코전기공업	정부계 펀드와 JIC(산업혁신투자기구) 연합에 매각 후 상장폐지
2025	이온	이온몰, 이온딜라이트	2개의 자회사를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완전 자회사화 발표
	NTT	NTT데이터그룹	공개매수로 100% 완전 자회사 편입 후 상장폐지
	NEC	NESIC	공개매수로 100% 완전 자회사 편입 후 상장폐지

자료: 언론종합,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이미 자회사 상장 추진 철회 사례도 많은 상황

우리 증시도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자회사 상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가 명문화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축 중 하나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회사 상장 규제 강화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이었던 만큼 실제로 2024년부터 자회사 상장을 추진을 철회되는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그룹 지배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주 업종 리레이팅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동안 구조적인 할인 요인이 컸던 지주사 및 그룹 지배구조 관련 기업들의 경우 NAV 대비 할인 축소 기대가 점진적으로 반영되며 리레이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시장 전반의 지배구조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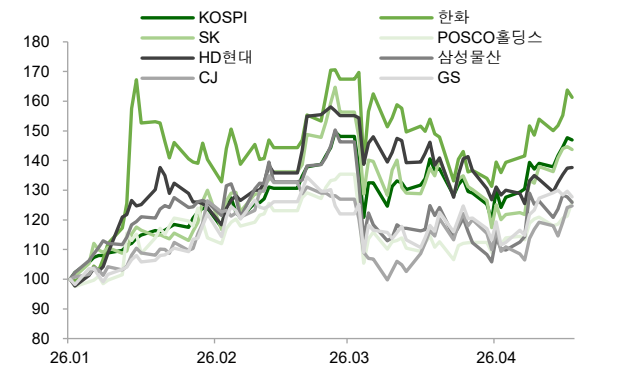
아울러 만일 향후 일본과 유사하게 자회사 상장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데이터 공개 및 관리 체계까지 도입될 경우 시장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며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선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이번 제도 변화는 시장 전체로 보면 지주사 NAV 디스카운트 축소와 지배구조 프리미엄 형성을 통해 증시 리레이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도표 12. 국내 주요 자회사 상장 계획 철회 사례

연도	모회사	상장 계획 철회 자회사
2024	다원시스	다원메닥스
	LS	LS이링크
	오스코텍	제노스코
	에이치피오	아른
2025	SK이노베이션	SK엔무브
	롯데지주	롯데글로벌로지스
	HD현대	HD현대사이트솔루션
	DN오토모티브	DN솔루션즈
	HL만도	HL클레무브
	코미코	미코세라믹스
	킵스파마	배터리솔루션즈
2026	LS	에식스솔루션즈
	넷마블	넷마블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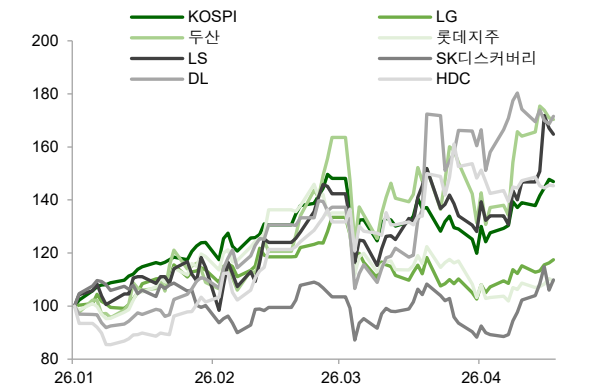
자료: 언론종합,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도표 13. 연초 이후 주요 지주사 상대주가 추이(1)



주) 2026.04.17 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4. 연초 이후 주요 지주사 상대주가 추이(2)



주) 2026.04.17 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증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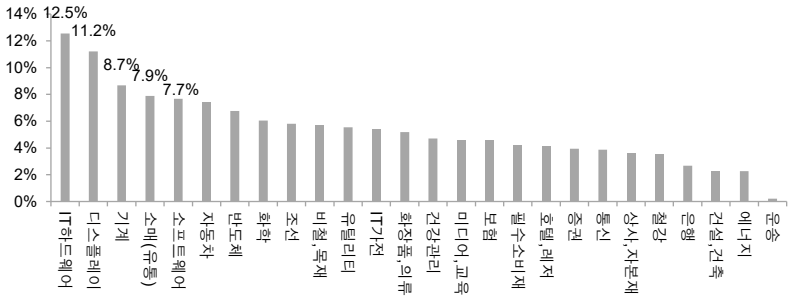
4/17 KOSPI 종가 6,192pt로 주간 수익률 +5.7% 기록

지난주 KOSPI는 6,192pt로 마감하며 주간 수익률 +5.7%를 기록했다. 주가 지수 강세에 힘입어 모든 업종이 (+)의 주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IT하드웨어, 디스플레이, 기계, 소매(유통), 소프트웨어의 강세가 두드려졌다. 기존 실적 주도 업종(IT하드웨어, 기계)와 턴어라운드(디스플레이, 소매) 업종으로 시장의 관심이 모이는 흐름이다.

반도체 외에도 소비재, 금융, 산업재 업종 이익 모멘텀 강화 중

KOSPI의 12개월 선행 EPS 추정치의 상향 강도는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소비재(화장품/의류, 유통)와 금융(은행, 증권, 보험), 산업재(건설/건축, 기계, 조선)의 이익 모멘텀 강화가 특징적이다. 반면 운송, 미디어/교육, IT가전은 전주 대비 이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도표 15. 한국 증시 업종별 주간 수익률(~2026.04.17)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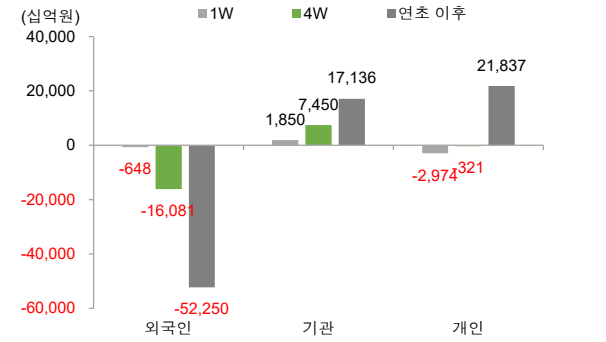
도표 16. 한국 주간 업종별 수익률 및 12MF EPS 추정치 변동 테이블(~2026.04.17)

	주간 수익률 (%)					12M fwd EPS 추정치 변동 (%MoM)				
	03.20	03.27	04.03	04.10	04.17	03.20	03.27	04.03	04.10	04.17
KOSPI	5.4	-5.9	-1.1	9.0	5.7	13.2	8.4	10.4	29.3	26.4
KOSDAQ	0.7	-1.7	-6.8	2.8	7.0	3.0	2.4	3.1	2.2	1.5
에너지	8.2	-8.9	3.2	4.4	2.3	-0.1	2.1	2.2	2.3	6.6
화학	3.6	-0.0	-1.7	6.7	6.1	36.2	31.1	26.6	22.7	12.9
비철목재	-2.6	-5.2	0.5	6.1	5.7	2.5	2.5	5.1	7.5	3.1
철강	2.0	-1.2	1.3	6.8	3.5	1.1	1.8	2.4	-0.7	-0.6
건설/건축	9.5	-7.4	2.4	19.4	2.3	1.8	-0.1	-1.1	-0.9	0.3
기계	4.0	-7.8	-2.0	7.1	8.7	3.3	2.6	2.0	2.3	3.0
조선	-3.7	-7.3	1.5	1.3	5.8	2.2	2.6	2.4	1.7	1.9
상사/자본재	1.1	-4.2	0.2	8.2	3.7	31.7	34.7	16.0	16.3	12.7
운송	4.6	-5.0	-3.9	6.4	0.2	1.0	-1.7	-0.3	-1.1	-8.6
자동차	0.9	-3.9	-4.7	3.1	7.4	1.4	1.2	1.0	-0.6	-1.0
화장품/의류	2.1	-2.3	-3.6	7.6	5.2	4.0	2.9	2.5	2.3	3.6
호텔/레저	1.8	-2.7	-9.5	4.3	4.1	-3.9	-3.4	-3.5	-6.3	-0.6
미디어/교육	-1.7	-6.8	-7.6	-1.2	4.6	1.5	2.0	1.3	-1.9	-2.5
유통	4.3	2.5	-7.5	5.9	7.9	1.6	1.7	1.1	1.7	2.4
음식료/담배	1.3	0.1	-1.3	3.2	4.2	0.8	0.6	0.7	0.7	-0.4
헬스케어	0.8	1.4	-10.3	0.3	4.7	0.9	1.1	2.0	1.3	0.6
은행	4.9	-2.1	-3.7	7.7	2.7	1.1	0.7	0.9	0.9	1.0
증권	3.5	-2.7	-5.7	8.4	3.9	1.2	2.2	2.4	5.3	6.5
보험	4.5	-5.0	-2.5	5.3	4.6	0.6	0.5	0.7	0.1	0.6
소프트웨어	-1.4	-2.7	-5.6	3.2	7.7	2.1	1.7	1.6	0.9	0.6
IT하드웨어	10.3	-3.0	-0.2	14.4	12.5	3.5	6.0	7.1	7.2	7.1
반도체	9.2	-9.2	0.0	12.7	6.8	18.3	9.3	14.7	45.7	41.2
IT가전	1.8	2.6	1.6	7.0	5.4	10.1	12.3	11.4	-3.4	-4.0
디스플레이	2.3	-1.8	-6.8	11.7	11.2	-0.4	1.8	1.6	2.3	3.6
통신	4.0	1.1	-1.0	10.9	3.9	1.4	1.4	1.4	0.6	-0.0
유틸리티	2.9	-10.2	-5.1	5.1	5.5	1.4	1.4	1.4	0.6	-0.0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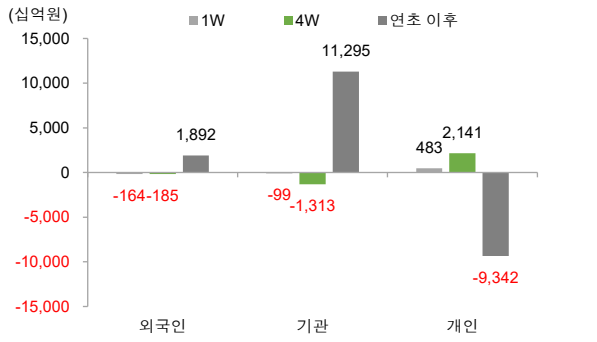
지난주 외국인은 KOSPI와 KOSDAQ 양 시장을 소폭이지만 모두 순매도 했다. 그럼에도 기계, IT가전, 화학, 화장품/의류, 소매(유통)에 대해서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반도체, 건설/건축, 증권의 경우 최근 우호적 주가 흐름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해석 가능하다. 기관의 경우는 KOSPI를 순매수 했으나 KOSDAQ은 순매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은행, 기계, IT하드웨어를 순매수 한 반면 건설/건축, 화학, 운송, 건강관리, 미디어/교육을 순매도했다.

도표 17.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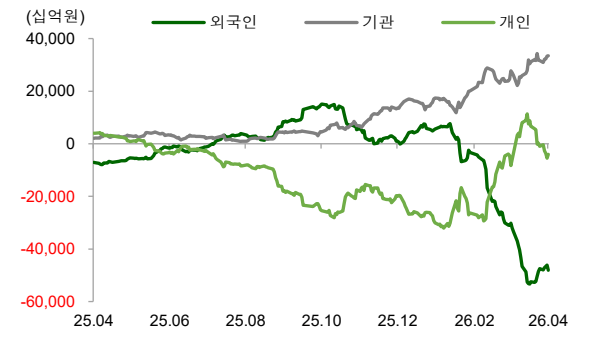
주) 2026.04.17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8.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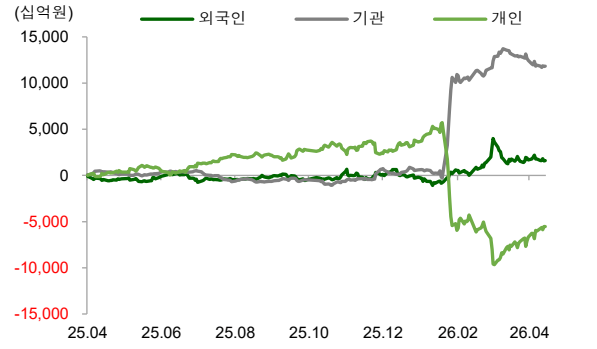
주) 2026.04.17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9.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4.17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0.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4.17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1. 주간 외국인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기계	325.9
	IT가전	234.4
	화학	181.3
	화장품,의류	179.0
	소매(유통)	90.6
순매도 TOP5	반도체	-577.3
	건설,건축	-326.2
	증권	-218.6
	조선	-210.7
	상사,자본재	-205.6

주) 2026.04.17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2. 주간 기관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반도체	527.0
	은행	297.1
	조선	256.7
	기계	198.8
	IT하드웨어	182.9
순매도 TOP5	건설,건축	-97.5
	화학	-79.4
	운송	-75.8
	건강관리	-63.1
	미디어,교육	-60.5

주) 2026.04.17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벤트 캘린더

월	화	수	목	금
4/6 미 3월 ISM 서비스업 PMI	4/7 삼성전자(잠정)	4/8	4/9 3월 FOMC 의사록 공개 미 2월 PCE	4/10 한국은행 금통위 미 3월 CPI
4/13	4/14 미 3월 PPI	4/15 미 3월 실업률 연준 베이지북	4/16	4/17 AACR 2026(~22일)
GS	JPM, JNJ, C, WFC	BAC, MS, ASML	TSM, NFLX, BX, FCX, ABT	PG
4/20 **SCHW**	**4/21** **미 3월 소매판매** **LMT, NOC, UNH, VZ, ISRG**	**4/22** **TSLA, GEV, PM, IBM** **삼성바이오로직스**	**4/23** **CAT, INTC, MA** **SK하이닉스, 신한지주,** **KB금융, LG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에피스홀딩스**	**4/24**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지수** **XOM, CVX, ABBV**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현대로템**
4/27 BOJ 금정위(~28일)	4/28 FOMC(~29일)	4/29 ECB 통화정책회의(~30일)	4/30 BOE 통화정책회의 미 3월 PCE	
KO, GM	V, PEP 키움증권, HK이노엔	META, MSFT, GOOG LG전자, 에코프로비엠, 하이브	AAPL, AMZN, LLY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기, LG화학	

주) 기업 실적 발표일은 추후 변동 가능, 각국 일정은 현지시간 기준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